설 쇠는 불자 마음가짐은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역법이나 문화의 차이로 나라나 지역마다 한 해 첫날이 다르다. 우리는 전통의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 명절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에만 해도 설을 쇠는 문제로 시끄러웠다. 양력설을 쇠는 집, 음력설을 쇠는 집, 두 설을 다 쇠는 집이 있었다. 이것은 이중과세이고 낭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단속도 하곤 한 것 같다.

양력설을 쇠든 음력설을 쇠든, 불자라면 어떻게 설을 쇠는 것이 좋을까. 먼저 사찰의 설 쇠기 문화를 알아보자. 사찰의 설 쇠기 문화에 전통의 통알(通謁)이 있다. "통알은 새해에 연이어 올리는 전통의 세배 의식이다. 세배는 새해 첫날 첫인사인데 대중에서 예불을 마치고, 통알을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세배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통알의 기원은 천자 나라에서 정초에 대신과 각국의 사신들이 천자를 알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때 고위 승직의 스님들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불교의 여러 불보살께 연이어 통으로 인사드리고 대중도 세배를 올리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통알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된다. 인도스님이 "통알 아뢰오"하며 이를 받는 대표스님이 "복청대중 일대교주 석가세존 전에 세알삼배(대중이여, 일대교주 석가세존 전에 새해에 삼배로 알현하시기를 바랍니다)"하며 절을 올린다. '삼배로 알현하라'고 하면서도 의례 책자나 실제를 보면

신정이든 구정이든 어떻게 설 쇨까
사찰의 설 쇠기 문화는 '통알 의식'
의식서 절의 대상 삼보, 신중, 영령
불자라면 근신·조신하게 설 쇠야

주로 1배를 한다. 통알 의식에서 절을 받는 분들은 누구일까.

'첫째 일대교주 석가모니, 둘째 시방삼세 일체불보, 셋째 교리행과 일체법보, 넷째 대소선교 일체승보, 다섯째 천선지기 명부시왕, 여섯째 금강명왕 주집신기, 일곱째 용왕산신 토지제위, 여덟째 사사시주 백무단월, 아홉째 존망사진 원근친척, 열째 십류삼도 일체고혼, 열한째 동주도반 합원대중' 전에 세알삼배를 올린다. 삼보님과 호법의 신중, 일체 혼령이다.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궁전의 통알은 황제나 임금에게 영의정부터 아랫사람까지 통으로 죽 이어서 알현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불가의 통알은 석가세존부터 일체 고혼에게까지 세알 삼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서로 맞절하는 형식이다. 사실 이것은 통알보다 통례(通禮)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재가의 불자들도 설날이 되면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거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눈다. 조상님께 올리는 설날의 제사를 '차례'라고 하는데, 이 차례를 '차를 올리는' 다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명절의 차례를 '다례(茶禮)'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차례는 통알에서 볼 수 있듯이 윗대 조상부터 낮은 조상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차나 제수를 차례(次第의 음운변화)대로 올리는 것이므로 순서라는 차례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재가불자들이 설 쇨 때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조상과 어른께 차례대로 세배를 올릴 때 '부처님 모시듯이 조심하며 정성을 다해' 조상님과 윗사람들께 절을 올려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신하고 조심하며 설을 쇠고 보내며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자의 바람직한 설 쇠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뉴스 검색 제한에 불교 언론 고사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대상 언론을 이른바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카카오와 언론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다음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CP가 아닌 1000여 곳의 일반 '검색 제휴' 매체의 기사는 포털 다음 이용자로부터 사실상 차단되는 위기에 처했다. 검색 제휴 매체에는 불교계 언론도 포함된다.

검색 대상 언론을 제한한 다음의 이번 결정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이것이 일반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언론 및 소규모 전문 매체들의 기사 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다양성에 역행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의 가치와 이용자의 알권리를 등한시한 지극히 상업적이고 자사 이기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다음이 해당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하였다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를 비롯한 인터넷 뉴스매체 29개 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불교계 등 검색 제휴 매체는
사실상 검색서 차단된 상황
플랫폼이 뉴스 생산자 선택
공론장 다양성 훼손 우려돼

다음은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이번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였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뉴스이용자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개별 언론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뉴스 유통업자 포털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문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들을 상회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털이 뉴스를 단순 판매 상품으로 간주하여 뉴스 유통을 장사 수단이나 상거래 행위로 인식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갈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이고 뉴스가 공공재인 만큼 뉴스 유통의 핵심 플랫폼인 포털은 뉴스 공급의 기본원칙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하는 상생의 마인드도 포함된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거든 뉴스 유통권 자체를 언론사에 돌려주는 게 상식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론의 다양성과 공론장 형성에 기여 해온 다수의 언론 매체를 좌절시킨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다음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社 說

청년전법으로 도약하는 불교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22년 9월 28일 취임했다. 당시 첫 행보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이었다. 이후 진우 스님은 취임 200, 300일에도 108배와 함께 청소년·청년세대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여는 진우 스님의 첫 행보도 108배 정진과 청년세대와의 소통이었다. 1월 1일 아침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우 스님은 대학생불자들과 조계사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가 함께한 108배 정진을 했다. 정진 이후 진우 스님과 청년불자는 자리를 옮겨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눴다고 한다.

지난 2023년은 대학생·청년 전법의 씨앗이 뿌려진 해였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이끌었던 상월결사는 지난해 인도순례 이후 대학생 전법을 지상과제로 삼고 그해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해 11월 11일 열린 사부대중 결집대회에서는 대학생 전법기금 151억여 원을 모연하며 대학생 전법 인프라 구축을 이뤄냈다.

대학생 전법으로 시작된 전법 중흥의 열기는 올해에도 이어가야 한다. 특히 대학생·청년 전법은 미래 불교 성패를 좌우하는 대작 불사다. 고무적인 것은 진우 스님이 중앙신도회 신년하례에서 밝힌 대로 군포교 전담TF을 구성해 군장병 수계법회에도 종단에서 적극 동참해 나간다는 점이다. 대학생, 군장병 등 청년 계층에 대한 촘촘한 전법·포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 맞는 방편으로 다가가야 한다.

서울 법련사 창건 50주년에 부쳐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았다.

이 도량의 창건과 중창이야기는 드라마틱하다. 효봉 스님을 친견하며 신심을 키웠던 김법련화는 1973년 11월 17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송광사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송광사는 그녀가 내생에는 수행자로 태어나길 기원하며 삭발염의해 사미니계를 수여했다. 법련화는 계를 수지한 다음날 세연을 다했다. 이후 법련화의 49재일인 1974년 1월 5일 법련사 개원법회가 봉행됐고, 도심 포교 반세기의 역사를 이뤘다. 20년이 지난 뒤 법련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내외와 인연을 맺고, 중창불사를 이룰 수 있었고, 지금의 사격을 갖추게 됐다.

중창불사 이후 법련사는 경내 불일미술관을 개관하고 서점, 찻집 등 문화공간을 만들며 파격적인 포교를 선보였다. 불교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화포교의 새 모델을 제시한 선구자가 바로 법련사다.

50돌을 맞은 법련사는 시대 흐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념법회에서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의 법문대로 "문명 전환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고민하고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량"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련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모든 사찰들이 고민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시대를 선도하는 전법을 50돌을 맞은 법련사가 보여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